

개인형퇴직연금(IRP)

운용지시 어렵다면 타깃데이트펀드(TDF)로 자동 운용



개인형퇴직연금(IRP)은 2010년 처음으로 도입됐다. IRP는 퇴직연금(DB/DC형) 가입자 또는 소득이 있는 거주자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한 퇴직연금 상품이다. 근로자가 이직하거나 조기 퇴직했을 경우 퇴직금을 바로 사용하지 않고 은퇴할 때까지 보관·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도 한다.

IRP는 연금저축과 함께 세금 혜택을 크게 받을 수 있어 저금리 시대 필수 상품으로 불린다. 소득금액이나 나이에 따라 혜택이 다소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두 상품의 합산 납입 한도는 연 1천800만원이고 그중 연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종합소득금액 1억원 이하의 만 50세 미만 국내 거주자의 경우 세액공제율은 13.2%로 92만4천원을 절세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매년 연말, 연초에는 IRP 적립금이 급격히 증가한다. 연말에는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자금이, 연초에는 퇴직자들이 IRP로 수령하는 퇴직금이 몰리기 때문이다. IRP가 세테크 상품으로 주목받으며 매년 적립금도 늘어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4년 7조6천억원 정도였던 IRP 적립금 규모는 2017년 15조3천억원, 2018년 19조2천억원, 2019년 말 25조4천억원으로 매년 20~30%대의 높은 증가율을 보인다.

1%대 저금리 기조가 장기화하고 있어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원리금보장형 상품의 수익은 기대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직접 실적배당형 상품을 고르기 어렵다면 자동으로 여러 종목·자산에 분산투자하는 타깃데이트펀드(TDF)를 이용하는 것도 적절한 방법이다. TDF는 투자자의 은퇴 예상 시기만 선택하면 별도의 운용지시 없이도 다양한 종목과 자산에 알아서 분산 투자해주는 상품이다. 공격적인 투자성향을 보유하고 있거나 연령대가 낮은 경우에는 2045갈

이 높은 숫자의(은퇴 예상 시기가 먼) TDF를 선택하면 된다. 반대로 안정적인 투자성향이나 연령대가 높은 경우에는 2025같은 낮은 숫자의(은퇴 예상 시기가 가까운) TDF를 선택하면 된다.

대부분의 TDF는 글로벌 금융시장 환경에 따라 포트폴리오를 재조정하기 때문에 운용 능력이 중요하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 사태 등 돌발 이벤트에 따른 변동성 장세에서의 성과는 TDF를 고르는데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다.

한국투자TDF알아서펀드를 운용하는 이태경 매니저는 “지난해 3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금융시장이 급락하자 이를 저가 매수 기회로 판단해 주식 비중을 늘렸다”며 “이 점이 최근 양호한 성과로 이어진 배경”이라고 말했다. ⑦

